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이웃과 가까워져 행복”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 대원들이 지난 18일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4m) 정상에서 등정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콜핑 제공>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 북미 최고봉 데날리 등정 성공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이 후원한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가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4m) 등정에 성공했다.

원정대는 지난 5월30일 미국 알래스카주 외실라로 출격해 6월 4일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등반 14일째인 18일 정상에 올랐다. ‘고상돈&콜핑 데날리 원정대’는 콜핑 박만영 회장과 박훈규 원정대장, 김태훈 원정대장, 서경만 등반대장, 박민숙(식량·기록)·김영민(장비·수송)·조민(회계·의료)·김백중(행정·촬영)·이영준(기록·촬영) 대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알래스카주에 있는 데날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 봉우리로 7대륙 최고봉 중 하나다. 국내 산악인으로는 1979년 고상돈·이일규·박훈규씨가 처음 올랐지만 하산 도중 고씨와 이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번 원정은 당시 고상돈 대장과 함께 등반했던 월로산악인 박훈규 고상돈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단장을 맡은데다 콜핑 박 회장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등정에 필요한 의류와 텐트·배낭·암벽장비는 콜핑이 후원했다. 원정대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만영 콜핑 회장은 “이번 원정은 콜핑 창립 33주년과 37주기를 맞은 고상돈 산악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콜핑원정대를 통해 국내 등산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나주분원 개원식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원장 장석주)는 지난 21일 나주공공도서관에서 박상철 호남대 부총장, 강인규 나주시장, 손현우 광주중국어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분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북부경찰, 금융사기 예방 간담회



광주북부경찰은 22일 광주은행, 농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153명을 초대해 ‘전화금융사기 척결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북부경찰 제공>

음식 직접 만들어 이웃사랑 실천 최성호씨 가족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이들과 요리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우리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웃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지 몰라요.”

최성호(41·광주시 동구 학동)·박선영(40)씨 부부는 최근 토요일 오전, 늦잠을 포기했다. 빼듯한 일정에 바빠 움직여야 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최씨는 매주 토요일 계엄령을 피했지만 지난달부터 이 느긋함을 포기했다. 당달이 최씨의 두 아들인 낙원(송의중 2년)·낙연(6)군도 인터넷 게임을 접었다.

이들 가족은 최근 매달 한 번씩 요리 봉사를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를 해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함께 먹고 있다.

최씨 가족은 지난달부터 (사)광주시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 이석용)가 진행하는 가족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봉사단은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후원하는 2016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는 사업이다.

흥미로운 요리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콕콕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족밥상’ 가족봉사단

광주 동구 가족봉사단 참여 매달 한번 독거노인에 요리봉사 가족 친밀감·봉사 소중함 깨달아

을 4월~10월까지 운영한다. 셋째 주 토요일 모두 10가족이 참여해 함께 요리를 한 뒤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최씨 가족이 준비한 것은 딱히 없었다. 토요일 오전 TV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앞치마를 입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최씨 가족이 누리게 된 행복은 컸다.

최씨는 “처음에는 애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참가하게 됐는데, 되레 우리 가족이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면서 “사춘기인 큰아들이 음식을 만들며 안정을 찾게 됐고, 응석받이 막내도 의젓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처음 만든 요리는 잡채였다. 최씨 가족은 지난달 정성스럽게 아침을 손질하고, 당면을 함께 삶으며 요리를 완성했다. 음식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할머니 집으로 전달됐다.



최성호씨 가족이 지난 17일 지역 독거노인과 나눠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의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함께 요리를 하며 부모와 나누는 대화도 늘었고, 물질이 아니라 맘을 흘리며 정성을 담은 ‘봉사의 의미’도 알게 됐다.

낙원군은 “맛있는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니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사시는 할머니의 집이었다”면서 “이런 행사가 없었다면 한 동네에서 살면서 서로 알지 못했을 텐데 음식을 나누며 이 할머니와 소중한 이웃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씨 가족은 두부스테이크와 감자탕도그를 만들어 이 할머니 집을 찾아가 나눠 먹었다.

박씨는 “이제는 이 할머니와 평소 전화통화도 하게 됐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른다”면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봉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정·화합의 장 ... 광주일보 4기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종강식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 아카데미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관관광호텔 2층 아리랑홀에서 1학기 종강식 및 원우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4기 원우회장 최갑렬(삼일건설㈜ 회장), 원우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원우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노력에 원우들의 열정이 합쳐져 성공적인 1학기를 보냈다”며 “2학기도 서로 즐기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갑렬 원우회장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 학기였

다”며 “다음 학기에도 우정·화합·교분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 아카데미는 오는 9월 6일부터 2학기 일정에 들어간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고미숙·정현재 초청 무료강좌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봉채)이 고미숙 작가와 정현재 서울대대교수를 초청, 23일부터 이틀간 무료강좌를 연다.

고미숙 작가는 인문학자이자 ‘마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니까’ 저자로, 23일 오후 2시 ‘100세 인생에서 노년에 대한 지혜와 성찰’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현재 서울대대교수는 다음날인 24일 오후 2시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라는 주제

로 강연에 나선다. 한국죽음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노년기에 준비해야 할 웰다잉(Well-Dying)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강의는 중장년세대의 미래설계를 돕는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 과정 중 하나로, 이번엔 수강생 외에도 시민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의시간에 맞춰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고미숙 작가 정현재 교수

한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생이모작지원팀은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제2인생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문의는 062-600-5241.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정호재(삼성애버랜드 퇴직)·양옥련씨 장남 찬희군(삼성전자) 주신호(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질임씨 차녀 송이양(LG전자)=25일(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테베리리하우스 단독 출.

종친회

▲하동정씨 장령공파 화목회(회장 정동열) 하계수련회=29일(수) 오전 8시30분 광주지역에서 출발, 순천 강천사 순제묘 참배.

알림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북부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치·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

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 =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 =미술·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 = (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당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 =

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가족지원센터 회원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요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 =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지도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광주 북성

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 =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부음

▲이해강(전북 공동회화)씨 별세 재승·재영(한국도로공사)·영주·동주·정선(이정선내과 원장)씨 부친상 이승재(승재한의원 원장)·정대필(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장)·김진호(김진호내과 원장)씨 빈부상=발인 23일(목)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3-250-244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황덕실 님(여/88세) 子/子婦: 박규태/김두아, 상태/유이희, 황승/이소영 女/婿: 박영호, 김남/박석주, 박삼/김진권, 은숙/이세현, 장자/황인범, 은희/이준구 • 발 인: 6월 23일 • 장 지: 영락공원	401호 故안병일 님(여/94세) 子/子婦: 윤중대/이은자, 종철/전복래, 종남 • 발 인: 6월 23일 • 장 지: 영락공원
402호 故안정례 님(여/80세) 子/子婦: 임희준/사미, 희선 女/婿: 임아정/한병수 • 발 인: 6월 23일 • 장 지: 영락공원	101호 故홍택영 님(남/71세) 子/子婦: 홍경인/오정래 女/婿: 홍래경/김해문 • 발 인: 6월 23일 • 장 지: 보성북부선영

102호 故김완준 님(남/59세)
 女: 김영희 未亡人: 문정숙
 • 발 인: 6월 24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